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2, 363 - 387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에 따른 행동들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 덕 응[‡]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에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사회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특출한 사회행동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냈다. 개인이 사회규범에 합치되는 사회행동들을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사회관계에서 대인간의 갈등이나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응과 아울러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도 달라져서, 이 두 요소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주관안녕에도 달리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안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15개의 특출한 사회규범이 되는 사회행동들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척도들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19세부터 75세에 이르는 2,129명(평균 32.6세)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문화에서 관습화된 15개 행동들을 개인이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사회관계에서 적응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두 경로들을 통해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변량구조모형의 모든 부합도 지수들이 양호하여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관습화된 사회행동들 가운데 현재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들은 가정가족, 예의예절, 성의성실, 신의신용, 물질절약, 집합주의였으며, 반면에 노력근면과 감정억제를 자주한 사람일수록 주관안녕이 낮아서 역기능을 보였다. 이 가운데 집합주의 행동은 사회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나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 따라서 달라졌다. 문화심리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나 개인에게 모두 순기능을 보이는 사회행동들은 장애에도 한국사회에서 지속될 개연성이 높지만 비록 사회적응에 순기능을 보이더라도 개인의 스트레스나 주관안녕에 역기능을 보이는 사회행동은 조만간에 수정이나 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문화, 사회규범, 사회행동, 한국유교문화, 사회적응, 스트레스, 주관안녕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선도연구과제 (2004-241-H00022) 유교관습에 따른 사회행동이 적응과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덕응, (110-745) 서울특별시 중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심리학과, 전화: 02-760-0489, E-mail: dwhahn@skku.edu

문화에 따라서 사회적응이나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주관안녕(예: Diener & Suh, 2000)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는 현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을 구성하는 특출한 사회행동들이 사회적응이나 스트레스와 아울러 최종적으로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시대 500여년 동안 유학사상을 국가 경영의 지표로 삼아서 정치와 문화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독특한 유교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한편으로 외래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생태환경 역시 큰 변화를 보였다. 한국사회에서 짧은 기간에 이처럼 극심한 변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인의 사회생활에서 유교의 영향이 남아서 사회행동에서도 사회관습으로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연구에서 한국인이 한국문화와 유교문화의 특징이 되는 요소들을 평정해서 얻은 자료를 보면 이 둘의 단순상관계수 $r = .50$ 으로서 상당히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한덕웅, 2003). 이 사실은 한국문화와 아울러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국사회에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여러 사회관습들이 현재 사회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관습화된 사회행동이 과연 현대 한국의 가정이나 조직의 사회환경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유교관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행동을 개인이 실제로 수행한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주관안녕과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이 과제를 다루려면 적어도 사전에 두 단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먼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규범이 되는 중요한 가치나 사회관습을 반영하는 사회행동들을 가려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인들이 특출하게 공유하는 가치와 사회표상, 정서, 성격, 동기 등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참고로 중요한 사회행동들을 가려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유교문화와 관련이 깊은 사회행동들을 가려내어서 현재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이 행동들을 각각 어느 정도 실행하는지 알아내면 한국문화와 아울러 한국인이 지니는 특출한 행동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다. (2)다음으로 현재 한국인들이 이 행동들을 실제로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응이나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면 각 사회행동들이 사회나 개인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보이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차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행동이 어느 정도 지속되거나 혹은 변화될지 추론할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두 단계에서 각기 다룬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유교와 연결된 한국문화의 연구

한국에서 유교가 문화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여 동양학,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에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거의 모두 한국인의 중요한 가치, 성격, 행동들 가운데 유교의 영

향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주관적으로 가려내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들을 근거로 한국의 문화에서 유교의 영향을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지니는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해서 심리학 연구가 수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편 최근에 차재호(1983/1994), 조공호(2000, 2003), 최상진(2000) 등 심리학자들이 한국문화에서 볼 수 있는 유교문화의 특징들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한덕웅(1994, 2002, 2003, 2004)은 주관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서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들 가운데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특징들을 계량적 기법으로 알아내는 일련의 전국 조사들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과 아울러 다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먼저 현재 한국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출한 가치와 사회규범들을 계량적 기법으로 알아내고, 이 가운데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한국인의 중요한 사회행동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사실 유교관습과 연결된 사회행동들 가운데 현재 한국의 사회환경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순기능을 보이는 행동들도 많다. 다른 한편으로 유교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회행동들 가운데 현재는 사회환경에서 갈등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개인의 주관안녕이나 사회관계에 역기능을 보이므로 나쁜 인습이라고 평가되는 행동들도 많다. 그러므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의 사회행동들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삶이나 사회관계에서 역기능을 보이고, 어떤 요소들이 순기능을 보이는지 알아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안녕이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면서 서양문화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된 변인들을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들에서도 이 변인들 가운데 준거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한국문화에서 관습화된 사회규범으로 형성되어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주관안녕이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을 찾아내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특히 한국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관습화된 일상생활의 행동들은 최근까지 짧은 기간에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면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전통 한국문화의 특징들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이 과제를 다루는데 소홀하였다.

이 관점에서 한국인의 사회생활에서 유교관습의 영향을 받은 중요한 사회행동들 가운데 현재 어떤 행동들이 개인생활이나 사회적응의 기능으로 볼 때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보이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사회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교문화의 중요한 요소들이 가정이나 다른 사회환경에서 수용되는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응과 주관안녕에 순기능을 보이기도 하고 역기능을 초래하기

도 한다고 가정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나 여러 조직에서 유교관습과 조화되게 생활문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 사회규범에 일치되는 사회행동들이 실행되면 사회지원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 환경이 된다. 가정생활을 예로 들면 가정에서 유교관습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혹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사회행동들을 지원하는 사회규범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사회화과정을 거쳐서 어려서부터 유교관습과 조화되는 사회행동들이 우세하게 습득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유교의 가치나 관습과 조화되게 가정문화를 이룬 경우에는 이 관습과 조화되는 행동을 실행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정생활에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좋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준도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생활하여 주관안녕의 수준도 높다고 예상된다. 이와 일관된 논리에 따라서 학교나 회사에서도 역시 유교관습과 조화되는 문화를 형성했다면 성원들이 관습과 조화되는 행동을 실행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응의 수준도 좋아지고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록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교관습에 조화되는 사회행동을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나 산업의 조직문화가 이와 달라서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개인이 이 사회행동들을 실행함으로써 경험하는 사회적응이나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회관계에서 개인이 실행한 사회행동은 해당 상황에서 개인이 지니는 감정, 기대, 의도를 포함

하는 지향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관습화된 사회규범에 동조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나 타인으로부터 초래되는 사회보상이나 사회제재를 기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달리 말해서 사회규범에 따라서 행동한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유교문화와 연결되어서 관습화된 행동들 가운데 현재 실행빈도가 높은 행동들은 개인심리나 사회관계의 기능에서 보상의 효과가 좋거나 처벌의 기능이 낮아서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효도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낮고, 가정에서 사회적응 기능도 좋으며, 주관안녕에도 기여한다면 효도행동은 지속된다.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동들은 실행을 억제하여 실제로 빈도가 낮을수록 순기능을 보여야 이 행동의 금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나 여러 부정적 정서들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고 억제한 빈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사회적응의 기능도 좋고, 주관안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면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개인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억제한 빈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높고, 사회적응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주관안녕에도 나쁘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서 이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의 빈도가 조만간에 낮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효도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의 보상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심리적 부담만을 가중시켜서 행복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관습의 규범과 달리 한국문화에서 효도행동의 실행은 점차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규범과 관습화된 행동

사회규범이란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신과 타인이 모두 지켜야 한다고 함께 믿고 있는 기대를 의미한다. 이 사회규범은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회표상, 개인이 경험하는 인지, 정서, 동기, 행동의도는 물론이고, 실제로 실행한 행동을 통해서도 표출된다. 문화에 따라서 이 요소들이 내용이나 구조의 측면에서 서로 달리 연결되어서 문화마다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은 필자의 다른 연구(한덕웅, 2003)에서 논의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과 조화되게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을 실행하게 되면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문화심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사회표상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회관계에 따라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규범을 습득하여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실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표상이나 사회인지는 다른 심리요인들의 영향으로 대체로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처리과정을 거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행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원격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떤 문화에서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은 어려서부터 실행도식을 습득함으로써 의식의 통제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문화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필자는 문화심리의 연구에서 문화마다 역사의 전개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달리 관습화되어서 사람들이 일상의 사회관계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실행양식을 다루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2003, 부록IV)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국인들이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한 요소들 가운데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지칭한 행동 요소들을 가려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본 연구에서는 관습화된 사회행동들 가운데 사회관계에서 의미가 큰 다음 15개 행동들을 선정하였다. 이 행동들이 세 준거들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가정·가족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행동들이다. 한국문화에서 가정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이 행동은 개인에게 좋은 사회적응의 기반이 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주관안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2)효도행동 역시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는데 역시 가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기여하므로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의 완충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주관안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최근 사회에서 보는대로 효도하는데 물질이나 심리의 부담이 따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효도 행위가 자기보상의 효과도 있으므로 전체 국민들을 염두에 둔다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행복에 기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3)가문·조상 행동은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

고 가문에 대해서 타인에게 긍지를 표출하는 행동으로 유교 전통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관련되는 전례의식이 간소화되고 일부 가정에서는 종교 등의 이유로 관심이 크게 낮아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관습을 지키는 가정에서는 이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 행동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고, 비록 심리적 부담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주관안녕에도 기여한다고 가정했다.

(4) 친척관계의 행동들 역시 확장된 가족사회에서 심리나 실제적 사회지원을 받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했다. 친척관계의 관리가 부담을 초래하는 면도 있지만 역시 순기능의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가정한다. 이 두 경로들 때문에 주관안녕에도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다. (5)윗사람관계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추종하는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윗사람으로부터 돌봄과 사회지원을 받는 측면을 지닌다. 또한 (6)아랫사람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돌보아 주고 이끌어 줌으로써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지닌다. 이 때문에 이 두 행동들은 수직관계의 위계에서 세력거리를 멀게 만드는 역기능이 크지만 았다면 대체로 사회적응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하고,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주관안녕에도 좋게 기여한다고 가정했다.

(7)친구관계 역시 한국은 물론 동양에서 매우 가치있게 평가된다. 유교문화를 다루는 Bond (1987) 척도에서도 이 요소의 중요성이 반영되고 있다. 친구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며 배려하는 행동은 사회적응에 기여하고, 스트

레스를 완충시키고, 주관안녕을 증진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가정했다. (8)인간성은 사람들에게 인정 있게 대하고 능력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행동을 다룬다. 이 행동은 흔히 정(情)이나 인정(人情)으로 표현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 이 행동은 때에 따라서 심적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높이는 기능을 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회관계에 기여함으로써 세 준거변인들에서 순기능을 보인다고 가정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 친척, 상하관계, 우정, 인정에 속하는 사회행동들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단면들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행동들이 준거변인들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9) 예의·예절 행동은 유교사상에서 모든 단면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복잡하고 정형화된 행동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서로 지키기로 합의한 행동들을 다루게 된다. 이 때문에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행동들은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방지하고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한다. 이 관점에서 이 행동은 사회적응의 증진, 스트레스 유발의 예방, 주관안녕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10)성의·성실은 사회관계에서 개인이 담당할 역할을 책임있게 행동으로 수행한 수준을 말한다. 이 행동 역시 사회관계에 기여하므로 적응에 중요하고, 비록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사회관계에서 유발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예방함으로써 주관안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11)감정억제 행동은 유학에서 특히 부정적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면 타인들 역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악순환 과정을 우려하여 사회관계의 순기능을 위해서 중요한 덕목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분노를 중심으로 부정적 정서들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게 되면 과연 사회적응에서 이 순기능이 나타나는지 관심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분노를 포함하는 부정적 정서들의 억제가 심혈관계 질환들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들(예, 전경우, 2000; 한덕웅, 2001)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 결과들을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12)신의·신용은 사회관계에서 개인이 상대방에게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 행동이 세 준거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근거는 예의·예절이나 성의·성실에서와 같다.

(13)집합주의 행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보는 행동으로 개인이 속한 단체나 여러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고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는 행동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이 행동은 특히 내집단에서 사회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 사회관계의 적응이 중요하므로 전반적으로 보면 주관안녕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14)노력·근면은 동양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서 서양 사람들이 능력을 강조하는 바와 대조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을 통해서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적

응에 도움을 받는다. 노력·근면은 개인의 동기를 동원하는 행동이므로 때로는 심적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관계에서 노력·근면이 결여되면 개인이 나쁘게 평가되고 집단생활에서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스트레스나 주관안녕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15)끝으로 근검·절약은 생활에서 사용할 물질자원이 부족한 시대부터 중요한 행동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유학사상으로 보면 근검절약은 이를 통해서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자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소비행동을 보여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대 생활에서 이 행동이 여전히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 가운데 어느 준거에서 순기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이 생활에서 근검절약하게 되면 소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과소비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부적응이나 스트레스와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근검절약 행동을 보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세 준거들에서 좋은 기능을 보인다고 가정한다.

사회상황에 맞는 사회행동의 실행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대부분을 가정, 학교, 회사에서 보낸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에서 한국인들이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을 대부분이 사회상황들에서 실행한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사회관계들에서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을 어느 정도 실제로 실행하였는지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이 사회관계들 이외에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대면하는 대인상황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관계들에서 실행되는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이 개인이 경험하는 전체의 주관안녕에 기여하는 설명변량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관계들이 외에 개인에게 중요한 사회관계들을 포함시켜야만 이 행동들이 실행된 수준에 의해서 준거변인들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년에게는 가정과 대학, 그리고 장년에게는 가정과 회사의 사회관계에서 실행된 행동만을 다루었다. 그 이유는 사회관계 상황에 맞게 형성된 행동의 실행도식을 한 연구에서 다루려면 관계유형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회관계들은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여 전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 관계들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사회관계들만을 다루게 되면 사회행동들이 준거변인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전체 변량은 작아지지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각 사회관계에 맞추어 습득한 사회행동의 상황화된 실행도식이 실제로 작동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유교문화와 관습화된 사회행동의 연관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서 특출한 사회행동들 가운데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루게 된다. 그런데 한국문화에서 관습화된 사회행동들 가운데 유교문화와 연관이 깊은 행동을 가려내는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화나 유교문화를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기준의 주관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판단 기준을 벗어나서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통 교양인들이 한국문화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행동 특징이라고 인정하면서 유교문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평가한 특출한 사회행동들을 조사에 의해서 가려내기로 하였다. 이 판단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지니게 된다. 우선 전문가들이 각 행동에 대해서 유교문화와 연관되는 근거를 학술적으로 적시할 경우에 볼 수 있는 이론적 장점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서 유교문화와 연관성이 큰 행동들을 가려내고 연관성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기법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판단치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 아울러 일반 대학생들이 독립되는 다음 두 조사들을 통해서 관습화된 각 사회행동들이 어느 정도 한국문화와 아울러 유교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여 중요한 사회행동들을 가려냈다. 먼저 필자(2003, 2004)의 선행연구에서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된 행동 요소들을 가려내고, 이 가운데 유교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수준 역시 높다고 평가된 행동 요소들만을 가려냈다. 다음으로 이와 별도로 실제로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의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유교와 연관이 높은 행동이라고 각각 동의하는 행동들만을 사용하여 각 행동척도들을 제작하기로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사회행동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다. 유교

의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에 포함된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예의와 예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유교에서는 오륜(五倫)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에 중요한 사회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당위의 덕목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유교문화에서 당위의 행동목록들은 오랜 역사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각 시대에 맞는 행위의 전형과 행동의 예들을 지니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시대에 행위의 전형이나 행동이 되더라도 시대의 사회상황에 적합하게 조정되지 못한 행동들은 당위의 근거를 잃게 되어서 소멸된다. 이처럼 행위의 전형과 행동 예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면 당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장차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행동들이 지속되거나 혹은 변화될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도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문화에서 생활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실행되거나 혹은 적합하지 못하여 변화의 표적이 되는 행동들을 가려내는 기준으로 ①행동을 실행한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적응하는데 끼친 영향, ②개인이 각 행동의 실행한 결과로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 그리고 ③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나타내는 주관안녕의 세 준거들에서 역기능을 보이는 행동들이라고 가정했다.

스트레스, 사회적응 및 주관안녕의 상호관계

개인마다 사회관계에서 규범을 반영하는 사회행동을 실행함으로써 경험하는 적응의 수준도 다

르고, 행동에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반응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정에서 조상을 모시는 관습행동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비록 가문의 시제, 제사, 성묘에 참여하는 행동이 가정에서 적응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는 내부 갈등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이 규범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에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이 지니는 신념, 태도 및 가치와 일관되지 않아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행동의 결과로 사회관계에서 대인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관계에서 개인이 지니는 태도와 달리 타인들이 요구하는 규범적 기대에 부합되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에 비록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사회적응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사회행동들은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와 일관되면서 사회적응에도 순기능을 보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행동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사회적응에 일관되게 모두 순기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모두 역기능을 보이는 행동들도 있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적응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혹은 상반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응은 주관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스트레스는 주관안녕에 부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가정했다.

본 연구의 과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행동을 실행함으로써 경험하는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서 주관안녕이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로서 사회 적응에도 순기능을 보이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 수준이 낮은 행동들은 일관되게 주관안녕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행동들은 사회관계에서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이나 그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가 좋지 못해서 주관안녕에 일관되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에 따라서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한국문화에서 한국인의 특출한 특징이 되면서 유교문화의 사회규범이 연결되는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이 현재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과 상관이 있는가? (2)현재 한국문화에서 유교의 사회규범이 되는 중요한 사회행동들 가운데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경험하는 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에는 각각 어떤 행동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3)사회관계에서 각 사회행동들이 적응과 아울러 스트레스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경로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서 사회행동들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과 스트레스가 각기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공변량 구조모형이 실제로 자료와 잘 부합되는가? (4)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을 각각 실행한 수준에 의해서 주관안녕을 설명하는 인과모형에서 이 가운데 어떤 행동들이 설명에 의미있게 기여하는가? (5)사회행동의 빈도들을 측정된 후에 약 2주가 지나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주관안녕을 반복해서 측정해도 설명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가?

앞의 질문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1) 관습화된 중요한 사회행동들은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과 각각 유의한 단순상관관계를 보인다.

(2) 관습화된 사회행동들 가운데 주관안녕의 설명에 기여하는 소수의 행동들은 동시점에서 모두 측정하거나 단기종단적으로 측정할 경우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3) 관습화된 사회행동들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과 아울러 스트레스가 두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

방법

절차: (1) 먼저 조사연구를 통해서 한국문화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규범들을 한국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찾아내고, (2) 이 가운데 유교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평가된 중요한 사회규범들만을 가려낸 다음에, (3) 각 규범을 반영하는 사회행동 척도들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서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각 행동을 실제로 실행한 수준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15개 척도들을 제작하였다. 이 척도들과 아울러 사회적응과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한국의 대학생과 장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다음으로 이 15개 행동척도들을 사용하여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과 어떤 단순상관을 보이는지 분석했다. (5) 사회행동들이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경로들을 거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인

과모형과 아울러 다른 대안모형들의 타당도를 검증했다. (6) 15개 사회행동들 가운데 세 준거변인들에 각각 유의하게 기여하는 사회행동들을 가려내었다. 공변량구조모형이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에서 얻은 자료에서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성이 공선성의 기준에 위반되는지 검증하여 각기 허용 기준을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 전국 6개 지역에서 19세 이상 대학생과 75세 이하의 대상을 합쳐서 2,12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와는 별도로 각 행동이 유교문화의 영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평정하는데 서울지역 대학의 대학원생과 대학생 177명이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표1과 같다.

행동빈도의 측정: 한국문화에서 사람들이 사회규범이 된다고 평가하는 사회행동들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관습화되어 있으면서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회행동들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하여 15개 척도들을 제작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난 1년간에 실행된 각 사회행동의 빈도를 묻는 문항들에 매우 드물다(1)부터 매우 많다

(7)까지 7점척도로 평정하였다. 대학생들은 가정과 대학에서 실행한 행동들을 측정하고, 장년 이상은 가정과 회사에서 실행한 행동들에 반응하였다. 그리고 각 행동척도의 문항들은 대학생과 장년에게 공통으로 중요한 행동들을 측정하되, 각기 가정, 대학 및 회사에서 동일한 문항들만으로 조정하여, 요인타당도와 신뢰도를 각각 산출하였다. 각 행동척도들의 내용, 요인타당도 및 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가정가족: 가족들과 친밀하고 화목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행동들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가족의 생일에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가족들의 생활을 알고 지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11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84부터 .701에 이르며, 신뢰도 $\alpha=.806$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7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89부터 .729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60$ 이었다.

효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대화, 순종 심적 및 물질 지원 등을 하는 행동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모의 의견에 따랐다”, “나는 부모의 생일이거나 기념일에 선물을 드렸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

표 1. 조사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유교영향조사		유교행동빈도조사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3	41.24	1,021	47.96
	여자	104	58.76	1,108	52.04
	전체	177	100.00	2,129	100.00
연령	청년	98	55.37	1,181	51.23
	장년	79	44.63	948	48.77
	전체	177	100.00	2,129	100.00

도는 1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은 최소 .394부터 .758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846$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1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81부터 .776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914$ 이었다.

가문조상: 조상을 숭배하기 위한 의례화된 의식들에 참가하고 가문에 동일시하여 자부심을 갖고 표출하는 행동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조상의 제사에 참석했다”, “나는 조상 가운데 훌륭한 분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58부터 .864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789$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10부터 .861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775$ 이었다.

친척관계: 친척들과 연락하고, 돕고, 함께 어울리는 행동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친척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겨서 문병을 갔다”, “나는 친척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와주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6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521부터 .732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786$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94부터 .801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760$ 이었다.

윗사람관계: 자기보다 위계가 높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추종하며 모시는 행동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윗사람이 지시하는 일은 순순히 따랐다”, “나는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45부터 .631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744$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의 요인부하량

은 최소 .290부터 .790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720$ 이었다.

아랫사람관계: 자기보다 위계가 낮은 사람들을 잘 돌보아주고 지원하며 어울려 지내는 행동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아랫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와주었다”, “나는 아랫사람이 잘못해도 관대하게 대했다” 등이었다. 대학생용 척도는 10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02부터 .689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800$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8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77부터 .672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727$ 이었다.

친구: 친구와 사적으로 친밀하게 어울려 지내면서 서로 돕고 친구 모임에 참석한 행동을 측정한다. 그 예는 “나는 친구들을 배려해주었다”, “나는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17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86부터 .749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862$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1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29부터 .785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869$ 이었다.

인간성: 타인과 인정있게 지내면서 이해하고 배려하여 행동한 수준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공부보다 인간됨이 좋은 친구와 지냈다”, “나는 인덕이 있는 사람과 가깝게 지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99부터 .561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631$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45부터 .667에 이르며, 신뢰도 $\alpha = .684$ 이었다.

예의예절: 사회관계에서 관습으로 지켜지는 예의와 예절의 기준들에 맞추어서 행동한 수준을

측정한다. 그 예는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의를 지켰다”,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켰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14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96부터 .648에 이르며, 신뢰도 $\alpha=.815$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9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84부터 .730에 이르며, 신뢰도 $\alpha=.840$ 이었다.

성의성실: 사회관계에서 타인들에게 성의와 성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대한 수준을 측정한다. 예로는 “나는 교수가 부과한 과제를 마치지 못했다(-)”, “나는 일하기 싫어서 결근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3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558부터 .761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30$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08부터 .783에 이르며, 신뢰도 $\alpha=.683$ 이었다.

감정억제: 이 척도는 특히 개인이 경험한 나쁜 정서들을 타인들에게 표출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한 수준을 측정한다. 그 예는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나도 참았다”,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억제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15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62부터 .686에 이르며, 신뢰도 $\alpha=.805$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1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76부터 .576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99$ 이었다.

신의신용: 사회관계에서 맺은 약속을 이행하고 타인들로부터 신뢰와 신용을 얻은 행동을 실행한 수준을 측정한다. 그 예는 “나는 한번 믿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었다”, “나는 친구들과 맺은 약속은 지켰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6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44부터 .724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26$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36부터 .669에 이르며, 신뢰도 $\alpha=.603$ 이었다.

집단주의: 학교 동창이나 지역 출신의 연고집단과 동료집단 등에서 주관하는 집합 활동에 참여한 수준을 측정한다. 그 예는 “나는 학교동창들과 가깝게 지냈다”, “나는 같은 학교 출신 선배의 일을 도와주었다” 등이다. 6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44부터 .646에 이르며, 신뢰도 $\alpha=.654$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92부터 .653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27$ 이었다.

노력근면: 가정, 학교, 회사에서 개인이 맡고 있는 기본 역할을 수행하면서 태만하지 않고 부지런하며 끈질기게 노력한 수준을 측정한다. 그 예는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나는 건강이 나빠도 공부했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8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09부터 .757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96$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412부터 .678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26$ 이었다.

물질절약: 돈을 포함해서 물자를 낭비함이 없이 절약하여 사용한 행동을 측정한다. 그 예는 “나는 무슨 물건이든지 아껴서 썼다”, “나는 분수에 넘치게 돈을 썼다(-)” 등이다. 대학생용 척도는 7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363부터 .679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14$ 이었다. 장년용 척도는 5개의 문항들로 구성

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579부터 .752에 이르며, 신뢰도 $\alpha=.802$ 이었다.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측정

사회적응: 이 척도는 개인이 가정, 사회, 전체 생활에서 각각 적응하고 있는 수준을 각각 측정하는 3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753부터 .915에 이르며, 신뢰도 $\alpha=.786$ 이었다.

스트레스: 이 척도는 개인이 가정, 학교 혹은 회사, 사회생활, 일상생활, 최근 전체적 스트레스 수준을 7점 척도로 측정하는 9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624부터 .812에 이르며, 신뢰도 $\alpha=.874$ 이었다.

주관안녕: 이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수준과 정서를 측정한다. 주관안녕은 한덕웅과 표승연(2002)의 연구에서 주관안녕인

지, 주관안녕정서 및 전체 주관안녕 수준을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척도들에서 개인의 전체 주관안녕은 주관안녕인지와 주관안녕정서를 7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들로부터 다시 평균을 구해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9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부합도 검증을 통해서 전체주관안녕이 하나의 척도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최소 .540부터 .835에 이르며, 신뢰도 $\alpha=.942$ 이었다.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 척도들의 독립성: 세 척도들이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상관을 지니지만 각기 구별되는 요인들을 측정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정에 따라서 서로 상관되는 세 요인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Lisrel 8.52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NNFI=.95, NFI=.95, GFI=.97, AGFI=.96, RMSEA=.08 로서 모든 지수들이 만족스러워서 세 척도들의 변별력

표 2. 15개 사회행동별로 본 유교영향 평가, 유교가치 및 한국문화 가치의 평균 (표준편차, n=1967)

15개 행동	유교영향		유교문화	한국문화	행동빈도	
	M	(SD)	M	M	M	(SD)
가정가족	5.26	(1.27)	5.49	5.38	4.80	(0.83)
효도	5.01	(1.56)	5.90	5.06	4.14	(0.93)
가문조상	5.24	(1.56)	5.86	5.30	4.07	(1.31)
친척관계	5.23	(1.56)	5.61	5.37	3.91	(1.28)
윗사람관계	4.16	(1.48)	5.60	4.96	3.86	(0.87)
아랫사람	4.99	(1.24)	5.60	5.27	4.45	(0.77)
친구	5.16	(1.31)	4.49	5.11	4.96	(0.72)
인간성	5.48	(1.13)	5.24	5.44	5.08	(0.82)
예의예절	5.51	(1.12)	5.76	4.90	4.98	(0.71)
성의성실	5.54	(1.18)	4.59	4.79	4.88	(1.28)
감정억제	4.47	(1.26)	4.92	4.88	4.23	(0.67)
신의신용	5.43	(1.10)	4.92	4.86	4.95	(0.79)
집단주의	4.49	(1.60)	4.58	5.45	3.81	(1.24)
노력근면	4.98	(1.49)	4.63	4.82	4.40	(1.15)
물질절약	5.36	(1.39)	4.63	4.70	4.72	(1.14)

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

15개 사회행동들에 대한 유교영향, 한국문화 및 생활가치의 평가

한국문화의 중요한 속성으로 생활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면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요소들로서 15개 사회행동들을 가려내었다. 필자(2003, 2004)는 조사연구를 통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동양이나 서양에서 중요하게 보는 가치, 덕목, 행동들에 대해서 한국문화의 특징이 되는 수준과 유교문화의 특징이 되는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각 사회행동들에 대해서 전국의 청년과 장년 853명이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인지 7점척도에서 평가한 평균을 표2의 “한국문화”란에 실었다. 그리고 전국의 청년과 장년 1,351명이 각 사회행동들에 대해서 유교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7점척도로 평가한 평균은 “유교문화”란에 실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177명이 각 사회행동척도들에 포함된 문항들 각각에 대해서 유교문화와 연관된다고 7점척도에 평가한 평균도 이 표의 맨 앞 “유교영향”란에 실었다. 표2에 실린 평균들을 보면 의도한 바와 같이 15개 사회행동들이 한국문화와 유교문화의 중요한 요소들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동척도들에 포함된 각 행동 문항들에 대해서 유교문화와 연관성을 7점척도에 평정하여 얻은 평균에서도, 비록 윗사람 관계에서는 4.16으로 다소 낮은 연관성을 보였지만, 대체로 4.5이상 5.5에 이르는 값을 보여서 필자가 의도한대로 유교문화의 사회규범을 반영하는 사회행동의 문항

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행동별 실행빈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15개 사회행동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를 7점척도에 평정하여 얻은 전체 평균들은 표2의 우측 ‘행동빈도’에서 볼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실행빈도가 매우 높았던 행동들은 인정·인간성(5.08), 예의·예절(4.98), 신의신용(4.95), 친구관계(4.96), 성의성실(4.58), 그리고 가정가족(4.80)이었다. 이 결과는 현재 한국인들이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친밀한 행동, 인정, 성실의 행동들을 자주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실행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행동들로는 집단주의(3.81), 윗사람관계(3.86), 친척관계(3.91)을 들 수 있다. 이 결과 가운데 집단주의와 친척관계 행동의 빈도가 낮은 사실은 한국인들이 최근에 집합행동을 덜 보이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순종과 추종을 핵심으로 하는 윗사람관계 행동의 빈도가 낮은 현상을 추가하면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세력거리가 큰 수직의 집합주의 행동들을 실행하는 빈도가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

각 사회행동의 실행빈도와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단순상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행동들을 실행한 빈도에 따라서 직접경로나 간접경로를 통해서 사회적응과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과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3에 실었다. 이 표에서 보면 사회관계에서 적용하는 수준에서는 윗사람관계만을 제외하고 14개 사회행동

들이 각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미 윗사람을 모시고 추종하는 사회행동의 빈도가 높아도 사회관계에서 적응하는 수준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윗사람관계의 행동과 사회적응의 상관을 연령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장년에서는 유의했으나 청년들에서만 유의하지 않아서 서로 달리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년에서 회사생활 등에서도 연장자를 우대하여 모시고 추종하는 규범이 특출한 바와 달리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청년에서는 친밀한 부모 이외에 윗사람을 근접된 위치에서 모셔야 하는 압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특히 최근에 수직의 상하관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연령보다 능력에 따른 수평적 체제로 극심한 사회변동을 겪는 사회현상을 반영할 수도 있다.

한편, 사회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는 행동은 윗사람관계($r=-.02, ns$)와 감정억제($r=.02, ns$)뿐이었고, 나머지 13개 측정치들은 모두 단순상관이 유의했다. 그리고 이 13개 행동들 가운데 집단주의 행동의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한 수준도 높아서 유일하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형성된 내집단의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규범에 동조하는 집단주의 행동이 이미 주관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주의 행동을 제외하면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인 12개 사회행동들은 모두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3. 행동빈도와 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 수준의 단순상관계수

	전체			청년			장년		
	사회적응	스트레스	주관안녕	사회적응	스트레스	주관안녕	사회적응	스트레스	주관안녕
가정가죽	0.34 ***	-0.27 ***	0.24 ***	0.43 ***	-0.24 ***	0.25 ***	0.30 ***	-0.29 ***	0.23 ***
효도	0.20 ***	-0.12 ***	0.25 ***	0.29 ***	-0.10 ***	0.21 ***	0.21 ***	-0.09 **	0.24 ***
가문조상	0.11 ***	-0.05 *	0.12 ***	0.12 ***	-0.02	0.13 ***	0.19 ***	-0.04	0.07 *
친척관계	0.12 ***	-0.09 ***	0.22 ***	0.19 ***	-0.08 *	0.24 ***	0.23 ***	-0.02	0.12 ***
윗사람관계	0.02	-0.02	0.14 ***	0.08 **	0.03	0.10 ***	0.20 ***	0.05	0.07 *
아랫사람	0.21 ***	-0.10 ***	0.20 ***	0.21 ***	-0.04	0.20 ***	0.27 ***	-0.15 ***	0.17 ***
친구	0.36 ***	-0.15 ***	0.17 ***	0.39 ***	-0.18 ***	0.27 ***	0.26 ***	-0.18 ***	0.11 ***
인간성	0.30 ***	-0.11 ***	0.11 ***	0.29 ***	-0.14 ***	0.17 ***	0.25 ***	-0.14 ***	0.13 ***
예의예절	0.35 ***	-0.18 ***	0.18 ***	0.37 ***	-0.14 ***	0.19 ***	0.37 ***	-0.21 ***	0.17 ***
성의성실	0.16 ***	-0.19 ***	0.08 ***	0.15 ***	-0.14 ***	0.08 *	0.20 ***	-0.25 ***	0.08 *
감정억제	0.10 ***	0.02	0.01	0.08 *	0.06 *	-0.04	0.16 ***	-0.02	0.06 †
신의신용	0.32 ***	-0.22 ***	0.17 ***	0.33 ***	-0.14 ***	0.20 ***	0.31 ***	-0.31 ***	0.17 ***
집단주의	0.23 ***	0.10 ***	0.08 ***	0.32 ***	-0.12 ***	0.26 ***	0.01	0.21 ***	0.05 †
노력근면	0.09 ***	-0.12 ***	0.14 ***	0.16 ***	-0.03	0.14 ***	0.27 ***	-0.15 ***	0.04
물질절약	0.12 ***	-0.21 ***	0.03	0.11 ***	-0.10 ***	0.01 ***	0.14 ***	-0.30 ***	0.04

† $p<.10$, * $p<.05$, ** $p<.01$, *** $p<.001$ 이하 표에서 동일

다음으로 주관안녕과 유의한 단순상관계수를 보이지 않은 사회행동으로는 감정억제 이외에 물질절약도 포함되었다. 이 결과 가운데 개인이 경험하는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고 억제한 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에는 도움이 되었지만($r=.10, p<.001$), 스트레스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유교사상에서는 감정억제가 사회관계에서 순기능을 보인다고 가정하는데 이 결과가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이 가정이 개인의 사회적응이라는 기능에서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물질을 절약하는 행동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수준도 낮았지만, 이 두 순기능들에도 불구하고 물질절약과 행복 수준의 상관은 사람마다 달라서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사회행동들과 스트레스, 사회적응 및 주관안녕의 단순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 윗사람관계, 감정억제 및 물질절약의 세 요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12요소들은 모두 세 준거변인들과 각각 일관되게 순기능을 보였다. 세 준거들과 일관되지 않은 상관을 보인 세 사회행동들 가운데 윗사람관계는 스트레스나 사회적응과는 무관했지만 주관안녕에는 순기능을 보였다. 반면에 감정억제는 사회관계에서 적응하는데는 기여하지만 사람마다 스트레스나 주관안녕과 관계가 달라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질절약을 자주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았고, 사회적응에도 순기능을 보였지만, 주관안녕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관계를 보여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세 행동들에서 세 준거변인들 사이에 일관되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배경에

는 특히 개인차 요인들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윗사람관계는 스트레스나 사회적응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고 주관안녕과는 유의했는데 장래 연구에서 만성적 스트레스나 사회적응의 개인차가 조절요인으로 영향을 달리 미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억제는 개인마다 분노를 포함해서 부정적 정서를 만성적으로 경험하거나 혹은 행동으로 표출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변인들이 감정억제와 주관안녕의 상관관계를 조절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물질절약 행동에서 개인의 경제 수준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여 사람마다 주관안녕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사회행동과 주관안녕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공변량구조모형의 검증

앞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반영하는 관습화된 사회행동들 가운데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을 각각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을 가려냈다. 여기서는 사회행동들이 각각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들을 통해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이 모형에 대안이 되는 두 가지 대안 모형들을 그림 2-1에 제시하고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들 가운데 가설 모형 I 은 서론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가설에 근거를 두는 가장 간결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실제로 한 15개 사회행동들을 각각 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응과 스트레스 경험에 각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두 경로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관안녕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이 경로들을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관계에서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완충시킴으로써 사회적응에 좋은 기능을 보이는 경로를 통해서 주관안녕에 기여한다고 가정했다. 또한 15개 사회규범의 사회행동들 가운데 일부는 개인의 가치와 갈등이나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행동들도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사회행동들을 실행한 수준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주관안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다. 그러므로 사회규범에 합치되는 사회행동들을 실행해서 사회적응의 수준은 높으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주관안녕의 수준이 높다고 가정했다. 반면에 사회행동의 실행으로 사회적응의 기능은 낮으면서 주관적 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은

사람들은 전체 주관안녕 수준이 낮다고 가정했다.

다음으로 대안모형Ⅱ에서는 15개 사회행동들이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간접경로들 이외에 직접경로를 통해서 주관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 대안모형Ⅱ는 가설모형Ⅰ에 비해서 15개 사회행동들이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 하나만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설모형Ⅰ의 부합도가 낮고 대안모형Ⅱ의 부합도가 기준보다 좋은 경우거나 혹은 가설모형Ⅰ과 비교하여 추가된 하나의 경로에 의해서 부합도의 수준이 의미있게 증가된다면 대안모형Ⅱ의 타당도가 가설모형Ⅰ의 타당도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안모형Ⅲ은 대안모형Ⅱ에 비해서 사회적응과 스트레스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두 경로들을 덧붙인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행동의 실행으로 사회적응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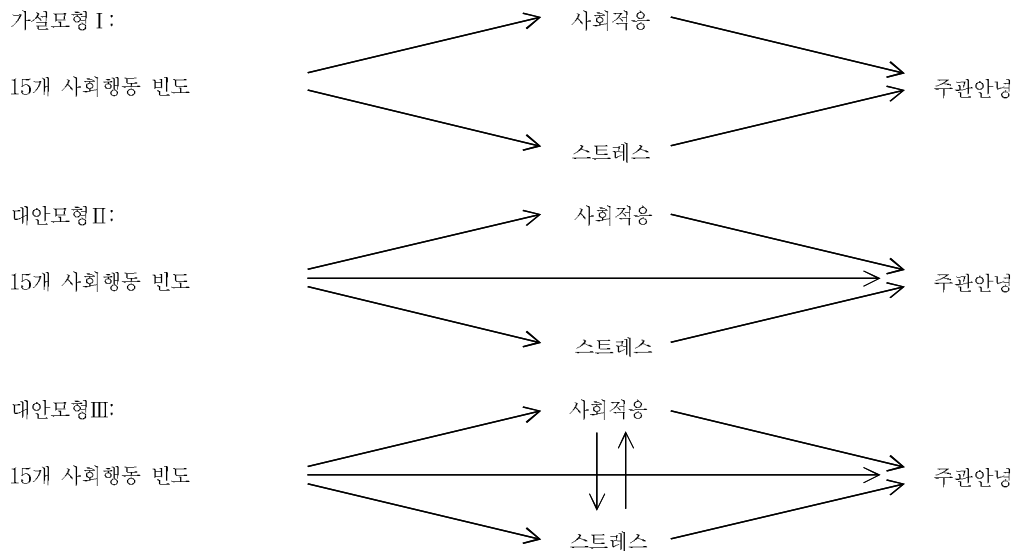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대안모형들

낮아진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사회적응의 수준이 낮으면 이에 따라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행동들의 실행으로 초래된 주관적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응에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보이는 수준도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앞에서 본 연구의 가설모형 I 과 대안모형들(대안모형 II, 대안모형 III)을 설명하였다. 이제부터 (1)본 연구의 가설모형 I 이 실제로 얻은 조사 자료에 잘 부합되어서 타당도가 만족스러운 모형인

지 알아보고, (2)가설모형 I 과 비교해서 대안모형 II와 대안모형 III의 두가지 대안모형들의 부합도가 가설모형 I 보다 좋아서 상대적으로 타당도가 더 높은지 알아보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변량 구조모형들의 부합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변인들간의 상관의 공선성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모형 I 과 아울러 다른 두 개의 대안모형들이 조사에서 얻은 자료에 어느 정도 잘 부합되는지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

표 4.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대안모형들의 부합도

모형 부합도	NNFI	NFI	CFI	RMR	GFI	AGFI	RMSEA
가설모형 I	.926	.982	.985	.043	.979	.885	.069
대안모형 II	.922	.990	.991	.027	.987	.876	.071
대안모형 III	.932	.992	.993	.023	.989	.887	.069

표 5. 모형 I 의 경로들 가운데 유의한 계수를 보인 경로들

인과경로	모형 I 의 경로계수 t	
행동→사회적응	가정가족	5.870 ***
	예의예절	4.385 ***
	성의성실	2.145 *
	감정억제	-2.070 *
	집단주의	8.313 ***
행동→스트레스	가정가족	-4.626 ***
	성의성실	-3.864 ***
	감정억제	3.994 ***
	신의신용	-2.209 *
	집단주의	3.723 ***
	노력근면	2.941 **
	물질절약	-3.397 ***
사회적응→주관안녕	10.135 ***	
스트레스→주관안녕	-19.742 ***	

면 표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들을 담은 가설모형 I의 부합도 지수들은 통상의 기준 .90보다 높고 잔차의 평균변량 역시 .07보다 낮아서 자료와 잘 부합하는 타당도가 높은 모형이었다. 대안모형 II와 대안모형 III 역시 높은 부합도 지수들을 보였고 잔차변량도 통상의 허용기준 이하였다. 그러나 가설모형 I과 비교해 볼 때 대안모형들에서 경로의 수가 각각 1개나 혹은 3개가 증가되는 수준에 비해서 부합도의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간략한 인과경로들을 가정한 가설모형 I이 타당도가 높으며 이 가설모형보다 많은 인과경로들을 가정하는 대안모형들은 부합도의 개선 효과에서 타당도에 추가로 기여하지는 못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가설모형 I을 검증한 결과에서 유의한 경로계수들만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모형의 부합도 검증에서 15개 사회행동들 가운데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요소들은 모두 5개였다. 즉, 가정가족, 예의예절, 성의성실, 집단주의는 순기능을 보이지만 감정억제는 역기능을 보였다. 또한 15개 행동들 가운데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행동들은 모두 7개였다. 이 가운데 가정가족, 성의성실, 신의신용, 물질절약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감정억제, 집단주의 및 노력근면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설모형 I의 가설과 일관되게 사회적응이 높을수록 주관안녕 역시 높아져서 이 경로계수(.20, $p < .001$)가 유의했다. 또한 가설모형 I의

가설과 같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안녕의 수준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37, $p < .001$) 역시 유의했다. 각 사회행동이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경로계수들로부터 이 두 준거들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 사회행동들도 알 수 있다. 즉, 가정가족, 성의성실 및 집단주의의 세 행동들은 사회적응을 높이고 스트레스는 낮추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보인 경로가 유의했고, 감정억제 행동은 사회적응에는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를 높이는 역기능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논의

본 연구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다룬 사회행동들은 한국문화에서 유교와 전통적 생활방식의 영향으로 사회규범을 형성하는 행동들이다. 한국과 같이 집합주의 전통을 지닌 사회에서는 개인적 준거나 경험보다 사회규범이 주관안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에서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일상생활에서 특출한 사회규범들을 찾아내어서 이 규범들이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규범이 되고 있는 사회행동들을 가려내어서 개인이 이 행동들을 실제로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응,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회관계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흔히 실행하고 있는 사회행동들이 사회규범에 일치하는 수준에 따라서 주관안녕이 달라짐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장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한다.

각 사회행동들과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단순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다룬 15개 관습화된 행동은 모두 세 준거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이 사회행동들이 기능의 측면에서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과 상관을 보이도록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들 가운데 사회적응 및 주관안녕과 정적상관을 보이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여서, 세 준거들 모두에서 순기능을 보인 행동들로는 가정가족, 효도, 가문조상, 친척관계, 아랫사람, 친구, 인정인간성, 예의예절, 성의성실, 신의신용, 노력근면의 11개 행동들이었다. 이 결과는 단순상관으로 볼 때 한국문화에서 유교의 영향으로 관습화되었다고 평가하여 선정된 15개 행동 가운데 2/3 이상이 현재 한국문화에서 세 준거에서 일관되게 순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이 행동들은 세 준거에서 모두 순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순기능들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기만 한다면 적어도 가까운 장래까지 한국인의 특출한 사회행동으로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사회행동들은 모두 실제로 실행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관계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낮으면서 주관안녕에도 기여하여 일관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이 사회행동들을 실천하

는 빈도를 높이도록 행동의 변화계획을 마련하면 사회관계를 개선하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11개 사회행동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행동들에서는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에 미치는 기능이 일관되지 않았다. 먼저 네 행동들 가운데 집합행동에서는 개인이 동일시하는 내집단이나 연고집단에 동조하는 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응과 아울러 주관안녕의 수준도 높아서 순기능을 보였으나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징으로 자주 연구된 바 있는 집합행동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역기능 때문에 장차 사회적응이나 주관안녕에 미치는 순기능들마저 약화되면 한국인들이 이 행동을 실행하는 빈도가 점차 낮아지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한편 윗사람을 잘 모시고 추종하는 사회행동을 자주 보인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느껴서 주관안녕이 높았지만 사회적응이나 스트레스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아서 개인에 따라서 사회적응이나 스트레스에 기여한 수준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이 행동이 주관안녕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는 다음의 두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윗사람을 잘 모시는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들로부터 받는 보상이 크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윗사람을 돌보고 추종하는 행동 자체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빈번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가 본 연구의 설명이지만 후자의 관점도 장래 연구에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끝으로 근검절약 행동이 빈번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으면서 사회적응 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근검절약 행동을 자주 실천하더라도 주관안녕이 높지 않아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근검절약을 통해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완충하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이 행동만으로 직접 행복을 증진하는 요인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두 매개경로들에 영향을 미친 사회행동들은 주관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장래 연구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행동과 주관안녕의 인과관계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관습화된 중요한 사회행동들을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응과 아울러 스트레스를 경험한 수준이 달라지는 두 경로들을 통해서 주관안녕이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이 인과과정을 가정한 공변량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에서 이 모형의 부합도 지수들이 만족스러웠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형보다 많은 인과경로들을 가정한 두 개의 대안모형들을 검증한 결과를 보더라도 증가된 경로의 수에 비해서 부합도 지수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미미했다. 이 결과에 근거를 두고 본 연구의 가설모형이 타당도가 높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래 연구에서는 여러 대안모형들에 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모형과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인과모형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로계수들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에서 물질절약 행동은 사회적응과 스트레스에 각각 좋은 방향으로 기여하는 경로들이 유의했다. 그러나 이 두 경로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가정한 주관안녕에는 물질절약이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포함해서 사회행동들 가운데 사회적응이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가정하지 않고도 주관안녕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가정할 수 있다. Lyubumirsky, Sheldon 과 Schkade(2005)의 개관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주관안녕을 증진하기 위해서 친 사회적이거나 예절 있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직접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연구들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른 행동들 가운데 직접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가정하거나, 본 연구의 대안모형Ⅱ처럼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하거나, 혹은 다른 간접경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다양한 모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관안녕의 증진을 위한 변화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장차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응, 심리적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수준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다른 사회행동들은 대부분 사회관계에서 순기능을 보이는 친사회적이거나 적어도 사회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 주는 행동들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몇가지 행동들을 실행하면 실제로 주관안녕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함을 알아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주관안녕에 순기능을 보이는 행동들을 실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도입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친사회적 행동의 실행빈도

를 높임으로써 타인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면서 조화롭고 원만하게 생활하면서 개인의 주관안녕을 증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 국외에서 실제로 사회규범으로 가치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실행하도록 반복해서 훈련하거나 혹은 단지 인지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하도록만 해도 개인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그 가운데 한 두가지만을 예로 들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새로운 변화의 도입계획에 활용하는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Lyubomirsky, Tkach와 Sheldon (2004)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거나 혹은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지고, 생기를 느끼며, 주관안녕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인지적으로 자신이 현재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적게 하여 생각하도록 하기만 해도 주관안녕이 높아졌다.

앞에서 예시한 연구로부터 각 문화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되어서 가치있는 덕목들을 행동으로 실행하거나 혹은 인지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주관안녕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가치와 규범을 이루는 덕목들을 개인이 행동으로 실행하거나 혹은 생각하도록 인지적으로 학습하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게 사회적응이나 주관안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한국문화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인지행동의 변화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도입하면 행복감이나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장차 주관안녕이 낮아지는 현상을 억제하기

보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주관안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계획을 마련하여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에서 유교관습과 관련된다고 평가되어서 다른 사회행동들은 대부분 사회관계에서 순기능을 보이면서 대인갈등을 유발하는 수준은 낮은 행동들이었다. 그런데 유교관습과 연결되는 사회행동들 가운데 특히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보면 사회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역기능을 보이거나 적어도 순기능을 보이지 못해서 나쁜 인습이라고 평가되는 행동들도 많다. 장래 연구에서는 이 행동들이 과연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한국문화에서 관습으로 남아서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고 있는 행동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를 통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이나 사회에서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보이는 다양한 관습행동들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체로 보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한국문화에서 사회규범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행동들을 실제로 실행한 수준에 따라서 사회적응, 스트레스 및 주관안녕의 수준이 달라졌음을 알아낸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에서 한국인들이 유교와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는 사회규범의 행동들 가운데 어떤 행동을 실행하면 주관안녕을 증진하는지 미치는지 알아낸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 주제를 한국문화심

리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점차 더 발전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전경구 (2000). 정서와 건강의 관계: 문화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6(3), 175-199.
- 조공호 (2000). *유학심리학*. 나남출판.
-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나남출판.
- 차재호 (1983/1994). 국민성 활성화 시안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인의 윤리관(319-382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차재호 (1994).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4). *퇴계심리학: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2000). 대인관계에서 4단7경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45-166.
- 한덕웅 (2001). 한국의 전통의학 사상에서 정서와 신체질병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22.
- 한덕웅, 표승연 (2002) 정서경험에 따른 주관안녕, 건강지각 및 신체질병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3), 403-427.
- 한덕웅 (2002). 한국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54-260.
- 한덕웅 (2003). *한국유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2004). 한국인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184.
- Bond, M. H. (1987). *Chinese culture connectio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Bond, M. H. (1996). *The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2nd ed.).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 Suh, E. M.(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Lyubomirsky, S., Tkach, C., & Sheldon, K. M. (2004). *Pursuing sustained happiness through random acts of kindness and counting one's blessings: Tests of two six-week interventions*. Unpublished data,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논문접수일: 2006년 2월 8일

수정논문접수일: 2006년 5월 1일

게재결정일: 2006년 5월 21일

The effects of the normative social behaviors connected with Korean Confucian culture upon subjective well-being

Hahn, Doug-woong

Dept. of Psychology, Sun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nventionalized social behaviors, which were connected with Korean Confucianism and constituted salient facets of social norms in Korean culture, upon social adjustment,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ain hypotheses of the study was that behavioral frequency of the 15 important behaviors would influence on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two mediation processes of socia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stress. The subjects of the survey research were 2,129 middle age and college students (average age 32.6) from 7 regional areas in Kore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The validity of the above two mediation processes model was confirmed from the fitness test of the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2) It was shown that almost all of the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15 social behaviors and the above three criteria were significant. (3) The results of the fitness test of the causal model showed that the family relationship, filial piety, relationships with the relatives, devoting and following to the superordinates, caring and directing subordinates and collectivistic behavior contributed positively to subjective well-being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both of worship toward ancestor and suppression of behavioral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showed negative path coefficients to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meaning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Confucian traditions and recent social changes in Korean cultu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Korean culture, social norm, social behavior, Korean Confucianism, Confucian culture, social adjustment, stress, subjective well-being.